

9월26일(월)/딤후2:1~13

제목: 가장 크게 남는 장사

바울은 디모데가 가르치는 일에 충실하면 기독교가 계속 널리 전파될 것이라고 하였다(1~2절). 바울은 디모데를 병사로, 경기자로, 농사꾼으로 부르며 그를 고무시켰다(3~6). 바울은 하나님은 필요할 때 마다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능을 주실 것이라고 하였다(7~8절).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디모데에게 고난이 뒤따를 것이지만 그 치욕을 잘 참고 견디면 영원한 영광을 받는다고 하였다(10절). 디모데는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도 있고 치욕을 당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다시 사는 것’과 ‘왕 노릇’이다(12절).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치욕을 당하기만 하면, 그 때부터 영광 얻을 일이 생긴다(11절). 이것이 공식이다. 크리스찬은 치욕이나 영광에 있어서 예수님의 파트너이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므로 우리가 행한 만큼 갚아주신다(11절).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외면하신다(12절). 예수님도 친히 우리가 사람 앞에서 자기를 시인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시인할 것이고 사람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인한다고 하셨다(마10:32~33). 예수님을 위해 많은 치욕을 많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많이 시인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크게 남는 장사이다.

9월27일(화)/딤후2:14~26 (1)

제목: 일거리가 복의 기준이다.

바울은 이단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었던 악성종양 같은 사람,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조심하라 하며 특히, 이들과의 논쟁을 피하라고 하였다(14~18절). 이유는 그것으로 이들을 갱신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교회 안에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인물이 존재한다. 집에 많은 종류의 그릇이 있는데 그중에 요긴하게 사용하는 것도 있고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도 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이다. 교회도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역시 여러 종류의 인간이 섞여 산다(20절). 그런데 어떤 인간이 좋은 인간인가? 깨끗한 인간이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좋은 인간으로 살아가는가? 안 좋은 인간으로 살아가는가? 교회 안에 아름다운 향기를 진동시키는 꽃같은 존재로 살아가는가? 독초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가? 그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실 것이다. 여기서 좋은 그릇은 주인이 자주 쓰는 그릇이다(21절). 크리스찬에게 영광이 무엇인가? 봉사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많이 쓰임 받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은 지위나 명예가 아니라 더 많은 봉사를 하나님으로부터 요구당하는 것이다. 일거리가 많이 주어지는 것이 복이다.

9월28일(수)/딤후2:14~26 (2)

제목: 지도자는 이렇게 해야 한다.

바울은 디모데가 지도자로서 지켜야 할 본문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첫째, 지도자는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한다(22절). 둘째, 지도자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22절). 셋째, 지도자는 논쟁을 좋아하지 말아야 한다(23절). 논쟁을 즐기는 사람이 있다. 논쟁 자체를 좋아해서 논쟁의 장터로 사람들을 끌어드는데 테크닉이 있는 지도자가 있다. 그러나 논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미해결로 처리되는 것이 더 많을 뿐 아니라 앙금만을 남겨두는 경우가 많다. 넷째, 지도자는 다투지 말아야 하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한다(24절). 다섯째, 지도자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까지도 온화하게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25절). 지도자는 마치 의사처럼 발병한 곳을 찾는데 정확해야 하고 그리고 실수 없이 치료해야 한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사람도 지도자는 자기의 온기로 녹여야 한다. 사람을 내리 치면서 자기를 따르도록 해서는 안되고 부드럽게 다루면서 자기에게 복종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악의 울무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26절). 지도자에 따라 사람이 천사도 될 수 있고 악마도 될 수도 있다.

9월29일(목)/딤후3:1~17

제목: 성경 안에는 기적이 있다.

바울은 말세가 가까울수록 이기주의, 물질만능주의, 자기 도취, 하나님에 대한 모독, 불효, 불경, 무정함, 복수, 흑색선전, 무절제, 난폭, 배반, 쾌락, 음란, 호색, 기독교에 대한 박해 등이 훨씬 심화될 것이라고 하였다(1~13절). 이러한 때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성경을 배우고 성경 안에 거하는 것이다(14절). 성경은 도대체 어떤 책인가? 첫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즉, 하나님의 거룩한 입술 기운이 서려있는 책이다(16절). 성경은 일반 책과는 질적으로 다른 책이다. 둘째, 성경은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책이다. 성경을 읽기만 해도 하나님의 입김이 그의 의식과 영혼에 스며든다. 하나님의 거룩한 숨결이 닿으면 그의 성향은 거룩한 성향으로 바뀐다. 악인이 선인으로, 살인자가 박애자로, 자기꾼이 도덕가로, 우울한 자가 밝은 자로, 전투적인 자가 평화적인 자로 바뀐다. 사람의 인성을 억지로 바꿀 수 없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자동적으로 인성이 바뀐다. 주변에 인성이 파탄에 이른 자가 있는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에게 성경을 꾸준히 읽도록 할 수 있다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성경 안에는 인간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그 무엇이 스며있다.

9월30일(금)/딤후4:1~8

제목: 인간 눈치 보지 말고 오직 묵묵히

바울은 디모데에게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전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2절). 왜냐하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보다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이나,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이다(3~4절). 이어서 바울은 이제 제물에 피를 흘릴 때가 되었다고 말하며 자기가 곧 죽게 될 것을 암시했다(6절). 바울은 자기 삶을 회고하며 패기에 찬 고백, 위풍당당한 고백을 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잘 지켰으니 이제는 면류관 받을 날만 남았다” 고 고백했다(7~8절). 올림픽 경기에서 가장 큰 상은 월계수관이다. 선수에게는 곧 시들어 죽을 월계수관 쓰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었다. 그러나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코 시들지 않는 면류관이다. 바울은 곧 로마의 법정에서야 한다. 그는 로마의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지 관심이 없었다. 편지 안에는 그런 기색이 없다. 그의 유일한 관심은 “잘 싸우고 돌아왔다. 면류관을 받아라” 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은 자기와 동일하게 산 모든 사람들에게도 내려진다(8절). 인간이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인간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 일만 묵묵히 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